

11월 1일 서울대가 발표한 2014 신입학전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시 인원은 더 늘고 정시 인원은 더 줄었습니다.

(정원 내 전형)

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일반전형	계
	지역균형 선발전형	일반전형	계		
2014학년도	779명 (24.6%)	1,838명 (58.0%)	2,617명 (82.6%)	552명 (17.4%)	3,169명(100%)
2013학년도	752명 (24.1%)	1,743명 (55.8%)	2,495명 (79.9%)	629명 (20.1%)	3,124명(100%)
2012학년도	710명 (22.9%)	1,173명 (37.9%)	1,883명 (60.8%)	1,213명 (39.2%)	3,096명(100%)

이로써 수시 인원은 60.8 -> 79.9% -> 82.6%로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고 고등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수시 일반전형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고 그에 맞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 수시 모집만 실시하고 정시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모집단위가 늘었습니다.

※ 수시모집만 실시하는 모집단위(정시모집 미 실시)

- 인문·자연계열
·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화학부, 생명과학부(추가), 지구환경과학부
·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건축학), 건축학과(건축공학), 산업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 사범대학: 교육학과, 물리교육과, 수학교육과
·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자유전공학부(추가)
- 예술계열
미술대학, 음악대학 전 모집단위

생명과학부와 자유전공학부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이공계가 무척 많습니다.

올해 2013의 경우, 이와 같이 수시모집만 실시하는 모집단위가 수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내신+논술/구술 없이 수능 100%로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어제 보도자료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대가 처음으로 '수시 충원 모집'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월 인원은 극히 적을

것이며, 또한 (뒤에 보겠지만) 정시에서 내신 비중이 40% -> 10%로 주는 상황에서는 이렇건 저렇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 3. 모집단위별 수시/정시 인원의 변동

		2013	2014
인문대	지균	80 (과별모집)	68 (광역)
	수시일반	112 (과별모집)	160 (과별모집)
	정시일반	86 (광역)	50 (광역)
사회대	사회대 전체 정원은 그대로이고, 광역과 과의 배분방식만 일부 조정되었음		
자연대	생명과학부가 정시에서 수시일반으로 옮긴 증감만 있음. 전체 정원 불변.		
간호대	지균	24	25
	수시일반	20	25
	정시일반	19	13
공대	지균 +5 수시일반 -5. 전체 정원 불변.		
농대	지균	74	76
	수시일반	132	125
	정시일반	90	95
생활과학대	지균	30	34
	수시일반	44	36
	정시일반	33	37
의대	지균	28	40
	수시일반	47	20
	정시일반	20	35
자유전공	정시 47명이 폐지되고 157명 전원을 수시일반으로 모집		
경영대, 사대, 음대, 미대, 수의예과는 변화 없음			

외고가 많이 지원하는 인문대는 지균과 정시를 줄이고 수시일반을 대거 늘였으며, 일반고가 많이 지원하는 농대는 지균과 정시를 늘리고 수시일반을 줄였습니다. 의대의 경우 외고 중 자 연계를 운영하는 외고가 일부에 불과하며, 과학고, 영재고는 보통 현역보다는 재수나 반수를 통해서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시일반을 많이 늘였습니다. 일반고 극최상위 권을 겨냥하여 지균도 많이 늘렸습니다.

### 4. 수시일반 전형의 주요 변동 사항

1)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됩니다.

- 교과부가 모든 대학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낮추라고 권고(?)하는 상황에서, 서울대가 선봉에 서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됩니다.
- 하지만 이미 서울대는 자연계열 대부분과 자유전공학부, 음대가 최저기준이 없었습니다.
- 최저기준이 있었던 인문계열과 의예과의 경우 최저기준이 2개 영역 2등급이었습니다. 솔직히 서울대 수시일반을 쓰고 합격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 중에 이 기준을 못 채우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 유명무실한 제도를 폐기하고 생색내기에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2) 면접 방식이 변경됩니다. 수학+과학을 기본 구도로 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모집단위별로 다양화**합니다.

모집단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 고
자연과학대학	지정과목 + 선택과목 1	지정과목 + 선택과목 1	현행유지
간호대학	선택과목	면접시험 및 인성	
공과대학	수학 + 선택과목 1	수학 + 면접시험	
농업생명과학대학	선택과목 1	면접시험 및 인성	
사범대학	지정과목	지정과목	현행유지
생활과학대학	선택과목 1	면접시험 및 인성	
수의과대학	수학 + 선택과목 1	생물화학 + 면접시험	
의과대학	모집단위 관련 인성및 면접, 영어관 및 수험생의 자율 평가	면접시험 및 인성	
치의학과		면접시험 및 인성	

자연과학대학에서 **지정과목**이라 함은 수리과학부는 수학, 통계학과도 수학, 물리천문학부는 물리, 화학부는 화학,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부는 지구과학을 말합니다. 즉 전공 관련 과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대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5 과목 중에서 위와 같이 한 과목을 지정과목을 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4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정과목이 아닌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행유지)

공과대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과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공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대는 과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집단위별로 면접 내용이 개별화, 세분화되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공대’ 이렇게 마음먹고 있어서는 안되고, ‘XX 학과’라고 미리 정해 놓고 그 전공에 맞는 면접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수의과대학이 수학 지정과목에서 생명과학 지정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전공의 특성으로 볼 때 바람직한 변화로 보입니다.

이외에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 생활과학대, 의과대, 치의학과 등은 모두 ‘전공적성 및 인

성'을 테스트합니다.

3) 경영대학은 영어지문과 수학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 5. 정시모집의 주요 변동 사항

1) **내신을 대폭 줄이고 수능을 대폭 늘렸습니다.** 사실상 사립대의 우선선발과 거의 비슷해 졌습니다.

	2단계		
	수능	논술/구술	학생부
2013	30	30	40
2014	<b>60</b>	30	<b>10</b>

사범대 인문계열은 교직적성인성검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전형요소는 다른 모집단위와 같습니다. 사범대 체육교육과도 교직적성인성검사가 사라졌고, 수능이 30% 반영하게 되어 작년보다 10% 증가하고 학생부는 10% 반영하게 되어 작년보다 10% 감소하였습니다.

2) **영역별 반영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모 집 단 위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직업탐구
전 모 집 단 위	100	120	100	80

수학이 125에서 120으로 5% 줄었습니다. 사탐/과탐이 75에서 80으로 5% 증가했습니다. 합산 점수에서 보면 탐구 과목이 5%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탐구 과목의 가치는 50% -> 80%로 증가했습니다.** 2013 탐구 과목을 세 과목 반영할 때는 세 과목의 변환표준점수를 합산한 다음 1/2를 곱해서 언수의 점수와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탐구가 두 과목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국어, 영어의 80%의 크기가 되도록 탐구 점수를 조정하게 되면, 탐구 두 과목의 변환표준점수를 더한 다음 4/5를 곱하는 셈이 됩니다. **서울대 정시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지금보다 탐구 과목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3) **사탐, 과탐 선택의 세부안이 나왔습니다.**

- 사탐 선택 시, '한국사' 필수 선택해야 합니다. (옥! 예상이 틀렸습니다.)
- 과탐 선택 시, **서로 다른 분야의 I+II, II+II** 두 조합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후자를 선택한다고 해도 가산점은 없습니다. 즉 지금처럼 [화학I+화학II]와 같은 형식의 선택은 불가하며, [화학I+생물III]의 형식이나 [물리II+생물II]의 형식 등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 4) 이른바 '교차지원'의 폭이 늘었습니다.

- 이과 학생(ABB+탐)이 인문계 모집단위 모두에 지원 가능한 것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단 수학 B 응시 학생의 가산점은 없어졌습니다.
- **문과 학생(BAB+탐)이 공과대 건축학과, 산업공학과,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대학은 문과 학생의 비율을 제한했었는데, 그것이 풀릴 것 같습니다.

#### 5) 기타 사항

-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은 만점 처리합니다. 그 이하는 등급에 따라 감점합니다. 아랍어, 또 신설되는 기초베트남어 등과 관련된 잡음을 원천봉쇄하려는 것 같습니다.
- 인문계열 정시 논술고사는 3문항 5시간에서 2문항 4시간으로 바뀝니다.
- 자연계열, 경영대학의 면접은 수학, 과학 공통 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전공적성, 인성을 평가합니다.

#### 6. 치의학과가 드디어 [학사+석사 통합과정] 방식으로 10여년만에 학사 모집을 실시합니다.

정시모집은 하지 않고요, 지역균형 15명 + 수시일반 30명 = 수시 45명으로 모집합니다.

#### 7. 자유전공학부는 인문, 자연계열을 통합하고 정시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2013은 수시일반 110명 + 정시일반 47명이었는데, 2014는 수시일반으로만 157명을 모집합니다.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 <총평>

서울대 발표 순서를 따르지 않고, 수험생 입장에서 주제와 경중을 따져서 내용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서울대 2014 신입학전형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서울대의 욕망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 의미가 없는 수시일반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면서 수시일반 정원을 늘리고, 정시는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수능 위주로 뽑는 실익을 노리고 있다고 보입니다.